
자가혈전 또는 젤폼을 이용한 PRIAPISM환자의 치료

부산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

윤상근, 곽현욱, 임경숙

목 적 : Priapism이란 성적 자극이나 의도 없이 음경이 발기되어 지속되는 질환이다.

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때 음경의 괴사, 섬유화, 발기불능 등이 초래된다.

Priapism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인과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공률이 일정하지는 않다.

그러나 외상 후 동맥성 Priapism의 경우 손상된 동맥의 혈류를 차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.

치료방법으로는 수술로 음경해면체 동맥을 묶어 주거나 색전술로 치료하는 것이다.

본원에서는 자가혈전 및 젤폼을 이용하여 외상 후 동맥성 Priapism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.

대상 및 방법 :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질병의 특성으로 인하여 2명의 환자에 대하여 자가혈전과 젤폼을 각각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.

환자는 혈관촬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한 후 Catheter를 복대동맥 내에 두고 대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골반 내 동맥들의 상태를 확인한다.

또 다른 Catheter를 이용하여 각 좌우 Common iliac artery에 두고 Micro catheter를 이용하여 Internal iliac artery를 따라 내 음부동맥(Internal pudendal artery)을 Super selection하여 혈관촬영을 시행하고 가성 동맥류나 해면정맥동으로 동정맥류를 확인함으로써 Priapism을 진단한다.

여기서 동정맥류가 확인되었다면 Micro catheter를 가능하다면 손상 받은 음경해면체 동맥까지 Selection하여 미리 준비해 둔 자가혈전 및 젤폼으로 Embolization을 시행한다.

색전술이 끝나면 내 음부동맥에서 다시 한번 혈관촬영을 시행하여 동정맥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대 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골반 내 동맥들의 상태를 확인한다.

결 과 : 본원에서 시행한 2명의 환자의 경우 100%의 성공률을 보였으며, 1주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 할 수 있었다.

치료 후 성기능 장애 역시 보이지 않았다.

이를 통해 자가혈전 및 젤폼의 경우 Priapism의 치료뿐만 아니라 발기부전 등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